

## 카포에이라: 자유와 평등을 향한 흑인운동의 상징

곽재성 (선문대학교 중남미학과)

최금좌 (경희대학교 강사)

### 글의 순서

- I. 들어가는 글 : 두 얼굴을 가진 브라질식 인종차별 정책
- II. 브라질 한 국가 속의 여러 나라
- III. 카포에이라(Capoeira)의 역사적 기원
- IV. 팔마리스 킬롬보의 춤바
- V. 카포에이라의 변천: 저항, 탄압 그리고 폭력화
- VI. 카포에이라의 방향을 갈래며
- VII. 맺음말: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 I. 들어가는 글 : 두 얼굴을 가진 브라질식 인종차별 정책

미국과 달리 브라질은 인종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인종주의자가 없고 인종문제에 있어서 흑·백 인종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도 '유연한' 것이 특징으로 알려진 나라였다. 이것은 브라질 최초의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 1933)가 주장한 "인종 민주주의론"의 공헌 때문인데, 그는 브라질 '흑인'과 '인종혼합'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 때까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문화'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브라질의 정체성에 대한 논

쟁에 뛰어 들었다(Mota, 1977 & Leite, 1983). 이러한 시도는 아주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백인 우월론에 입각한 '인종'이론에 대한 반발이며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포르투갈인,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남미 열대지역의 토착민간의 혼합으로 인하여 지구 북반구의 유럽 산업사회와 다르고 남반부의 비 백인 농경사회와도 차별되는 독특한 '루조-트로피칼리즘(luso-tropicalismo)문화'를 창조해냈다는 그의 주장은 브라질 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고, "브라질의 인종혼합의 특징들이 다가올 미래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게 될 모델임으로, 브라질인들 스스로는 이러한 브라질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혼합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영향력있는 주장들이 끌어내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Eakin, 1997).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브라질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을까? 브라질은 과연 흑인들의 파라다이스였을까? 그러나 프레이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게 된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 브라질의 북동부지역을 연구한 도날드 피어슨(Donald Pierson)과 같은 미국학자는 프레이리와는 달리 '계급'의 개념에 비추어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찌감치 인정한 바 있다(Motta, 1997). 그리고 1950년대에는 상파울루 대학교의 사회학자들의 리더였던 플로레스탕 페르난데스(Florestan Fernandes)가 브라질 '사회구조' 패러다임으로 흑인문제를 다루면서, 식민시대부터 노예제로 인하여 고착화된 인종차별주의가 해결되지 못한 채 브라질이 20세기를 맞이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브라질의 인종주의를 동 세기 전반부의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 - 즉 중세 장원제도 와 흡사한 전 근대적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 - 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이해하여 인종주의가 갖는 함의를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키기에 이르렀다(Peirano, 1981 & Motta, 1997). 즉, 저발전과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이 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브라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응

용되기도 하였다(최금좌, 1999b 참조).

다른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세계의 관심이 인종 화합에 대한 인류의 꿈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자 유네스코는 1950년 그 동안 '조화로운' 인종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던 브라질을 연구대상지로 결정하여 많은 학자들을 파견한다. 하지만 그들은 브라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예기치 않은 - 혹은 예측 가능한 - 결론은 앞에서 언급했던 피어슨과 페르난데스의 주장인 '사회적 계급의 구조적 고착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식민시대는 물론, 1930년대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인종 민주주의론"과 "루조-트로피칼리즘" 신화를 주장한 이후에도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정치적 조직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금지되어왔다. 1888년 노예해방이 실현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브라질 정부나 사회는 인종 차별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브라질 문화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프리카의 흑인 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흑인들이 국가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창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이와 같은 노골적인 차별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흑인들을 사회에 끌어안음으로써 흑인들을 체계적으로 사회에서 소외시키기도 하였다(Motta, 1997). 모따는 이러한 정책의 좋은 예로써, 축구 선수 펠레(Pelé)의 체육부 장관 기용과 리우 데 자네이루 州정부가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구 보호 및 진흥청(SEAFRO - Secretaria Extraordinária de Defesa e Promoção das Populações Afro-Brasileiras, 1991년 4월 10일)을 들고 있다.<sup>1)</sup>

---

1) 이 기관은 원래 흑인 인구 보호 및 진흥청(SEDEPRON-Secretaria Extraordinária de Defesa e Promoção das Populações Negras)에서 출발한 것으로, 브라질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왔던 흑인들의 사회참여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다분히 추상적인 목표 하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브라질의 1억 6천만 인구 중, 흑인인구는 44.2%를 차지한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8,500만 명) 다음으로 많은 흑인이 브라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주 교육 및 사회복지장 연합(FASE - Federação para Assistência Social e Educacional de São Paulo)의 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대학입학율이 43%인 반면 흑인의 입학율은 18%에 불과하여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브라질의 미래 사회에서 흑인의 신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브라질 지리통계 연구소 (IBGE-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의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세계 63위인 반면 흑인들만을 따로 떼어 집계해 보면 세계 120위에 불과하여 빈·부와 흑·백의 대조로 알려진 브라질에서 흑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UCB의 Clara교수의 1998년 “인종 차별”과목 수업자료). 따라서 브라질 흑인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인종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분상승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브라질 흑인들 중 90%가 자기들이 흑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예’시절의 과거를 잊으려는 듯 스스로를 ‘흑인(negro)’이라 부르지 않고, ‘물라토(mulato)’ 아니면 ‘모레누(moreno)’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100명의 흑인 중 70명은, “인종이 자꾸 혼합되다 보면 전체 브라질 국민의 피부가 언젠가는 ‘백인화’가 될 것”이라는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 1888)의 주장에 사로잡혀있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Burdick, 1995: 175-176).

이와같은 여러 문제점 하에서도 흑인의 지위를 개선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은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 창설되어 지금은 브라질 전역에서 흑인들의 복지를 주장하는 ‘흑인운동 연합(MNU-Movimento dos Negros Unificados)’은 자신들이 흑인의 후손임을 인정하는 정체성 문제부터 깨우치려는 운동을 펴고 있다

(ibid.). 특히 현 브라질 헌법이 주도되고 있던 1986부터 1988년까지, '흑인운동연합'의 지도층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다수의 '브라질 흑인 정당대회'를 열어 그들의 제도적 지위를 확대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6년 선거에서는 두 명의 흑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sup>2)</sup>

또한 다행스럽게도 1995년에 플로레스탕 페르난데스의 제자인 사회학자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대 전환을 이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줄곧 소외되었고 사회의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가장 밑 부분을 차지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흑인들을 브라질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카르도주 정부는 구조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통해 흑인들이 진정한 브라질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흑인문화 재평가 작업에 대한 정책적 후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어떤 문화보다도 다양성이 풍부하게 내재된 브라질 문화를 새롭게 인식시켜 흑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흑인의 권리 신장에 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파격적인 조치로 90년대 초 공포된 '인종차별 금지법'을 예로 들 수 있다.<sup>3)</sup> 브라질의 일반 주택단지나 상업단지의 건물들에는 보통 두 종류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용 승강기(Elevador Social)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인용 승강기(Elevador de Serviço)로, 하인 계

---

2) 이들은 카를로스 알메르투 올리베이라(Carlos Alberto Oliveira)와 베네디타 다 실바(Benedita da Silva)이며 그중 실바는 1994년 선거에서 노동당(PT) 소속으로 상원에 까지 진출하게 된다.

3) 이 법은 원래 사회민주주의와 민중주의 성격을 띤 민주노동당(PDT-Partido Democrático Trabalhadista) 소속의 리우 데 자네이루 주지사인 브리졸라(Brizola)가 주창하여 제정된 것이다.

급에 속하는 흑인들은 절대로 지배 계급이 타는 일반용 승강기에 동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인종 구분 없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브라질 사회에서 아주 당연시 여겨졌던 관행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0년대 중반 카르도주 집권 이후 브라질 사회에서 새롭게 자리잡은 현상은, 그 전까지 브라질의 전통무술로만 알려진 카포에이라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인종을 초월한 대중 스포츠로 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대한 브라질 지역적 특성과 역사가 어떻게 카포에이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역사적 기원과 저항, 탄압 그리고 폭력화과정을 추적해보면서, 90년대 인종 문제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카포에이라가 갖는 흑인들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브라질: 한 국가 속의 여러 나라

브라질은 거대한 국가이다.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활한 영토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보다 크며,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대국들인 아르헨티나의 세 배, 멕시코의 네 배에 이른다. 서유럽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브라질 영토에 들어찬다. 이렇게 방대한 국토의 브라질은, 다양한 구성요소가 한 곳에 뒤섞여 있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적·문화적 특성이 뚜렷한 각각의 지역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브라질내의 다섯 지역은 인종, 사회, 경제구조 등에서 각각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의 기원은 거대한 영토라는 자연적 배경과 식민시대 이후의 복잡다단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역간 특징을 이루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브라질의 각 지역이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아낸 것이었다.

북동 지방은 식민 초기인 16·17세기에, 남동 지방은 금광이 발견된 18세기에, 남부 지방은 유럽이민이 몰려온 19세기에 각각 전성기를 누리며 발전해왔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든 이후, 아마존 개발붐과 브라질리아로의 천도로 북부 지방과 중서부 지방의 개발이 각각 진행되었다. 다섯 지역 중에서도 지역간 대비가 가장 뚜렷한 두 지역은 바로 북동 지방과 남동 지방이다.

북동부는 바이야 지방의 사탕수수 농장을 기반으로 식민초기부터 일찍이 번성하였다. 흑인 노예제를 바탕으로 성장한 덕분에 인종과 문화에 있어서 아프리카적인 색채가 매우 짙으며 바이야주의 수도인 살바도르(Salvador)는 아프리카 문화가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는 창구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살바도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1700년 이후 사탕수수 농업이 쇠퇴하고 남동 지방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살바도르에서 남동 지방의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이하 리우라 칭함)로 수도가 옮겨갔고 브라질의 북동 지방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산업화 시기인 1960-70년대에는 무려 4,200만 명이 땅을 찾아 아마존 유역으로 또는 일자리를 찾아 남동 지방의 대도시로 떠났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지역은 1인당 GDP가 국내 평균 40%에 불과해 브라질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곳으로 전락했다.

반면 남동 지방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돈벼락을 맞은 곳이다. 1690년에 금광이 발견되자 순식간에 리우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했고, 19세기에 몰래 들여온 커피가 고부가가치 수출작물로 대량 재배되면서 세상 어느 곳도 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만약 커피의 부흥이 없었다면 상파울루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19세기말에 이르면서 대규모의 유럽이민이 남동 지방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노예제도의 폐지로 야기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사회변동은 북동 지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브라질을 이 지방에 잉태했다. 남동 지방의 면적은 브라질 전체의 11퍼

센트에 불과하지만 리우, 상파울루, 벨로 오리존치 등의 주요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는 무려 43퍼센트, 산업생산은 80퍼센트가 집중되어있고, 생활 수준은 북동 지방보다 3.5배가 높다.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지역간 대비 현상이다(곽재성 외, 2000: 156-159).

남동 지방 내에서도 리우는 그 동안 누려왔던 정치·경제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 2차 대전 이후 금융의 중심지로 상파울루가 급부상하고, 1960년엔 중서 지방의 브라질리아(Brasilia)로 수도가 옮겨간 탓이다. 범죄율의 증가로 예전과 같은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서의 명성도 갖고있지 못하다. 그러나 리우는 여전히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리우는 브라질의 '심장'이라고 흔히 묘사된다. 그러나 살바도르라는 브라질의 '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리우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다.

### Ⅲ. 카포에이라(Capoeira)의 역사적 기원

브라질 어느 도시의 시내 한 복판, 두 젊은이가 알 수 없는 타악기와 노래의 장단에 맞추어 브레이크 댄스 비슷한 역동적인 몸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행인들의 한푼 적선을 바라는 낡은 모자도 놓여있다. 이들은 카포에이라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에 와서 더 사랑받고 있는 카포에이라는 우리나라의 태권도나 택견처럼 호신술이나 공격술을 익힐 수 있는 무술일 뿐만 아니라, 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며, 또한 심신수양의 일종이기도 하다. 단지 태권도나 택견의 동작을 아주 느리게 앉아서 또는 서서 한 쌍이 반복하는 것으로 상상하면 된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카포에이라는 브라질 각 지방의 흑인과 몰라토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속속 동호회가 만

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카포에이라 속에 뭔가 특별한 역사적 함의가 숨겨져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복자들은 신대륙의 토양, 기후, 교통, 광물 부존 여부 등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차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1493년에 두 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콜럼버스는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인 이스파놀라섬에 최초로 사탕수수를 심었고 수확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생산은 식민시대에 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졌고 가장 붉을 이룬 곳은 브라질의 북동부 지방이었다. 설탕이 감자의 4배, 밀의 10배나 되는 열량을 내는 고 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지자 유럽 노동자들의 필수 식료품으로 떠올랐고 그 결과 유럽에서의 수요가 폭발하여 사탕수수의 재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류를 타고 당시 브라질의 수도였던 바이야 지방의 살바도르는 설탕 생산의 중심지로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바로크식 성당이 세워지고 대규모 항만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거대한 노예시장도 형성되었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16·17세기에 걸쳐 포르투갈인에 의해 브라질 땅에 수입된다. 면화나 사탕수수의 경작과 수확에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브라질에서는 페루의 잉카, 또는 멕시코의 아즈텍과 같은 고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척박한 자연조건과 희박한 인구 때문에 거대 문명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인디오들은 포르투갈의 식민이 시작되자 도망쳐 숨어버리거나 모진 노동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곽재성 외, 2000:221-222). 그러므로 브라질의 사탕수수 산업은 전적으로 노예라는 외부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포르투갈의 식민통치기간동안 브라질로 수입된 노예의 수는 총 360만이 넘었다. 이들은 출신별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아프리카 동부의 모잠비크, 수단 그리고 기네 북부 출신의 수단족(sudanese)으로, 이들은 당시 수도였던 살바도르 인근

의 농장들에 투여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열대의 적도에 처해있는 기네, 콩고, 앙골라 출신의 반투(Bantu)족들로 네덜란드의 침공의 중심지였던 헤시페(Recife)와 금광발견 이후 수도가 된 리우 근처의 농장들에 투입되었다. 비록 노예라는 신분으로 브라질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원래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응용하여 새로운 땅에 자기들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된다(Koshiha & Pereira, 1997).<sup>4)</sup>

물론 흑인 노예들은 백인주인들에 의해 거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다루어졌다. 그들은 국제자본주의 시장을 겨냥한 노동집약적 산업(사탕수수)에 투입된 하나의 생산 부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을 리 만무했다. 인두로 지지만든 표식이 새겨졌고 헛간에 집단 수용되었으며 식량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 실조와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흑인 노예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라는 슬픈 역사가 깃들여 있는 브라질 북동부 지방이 바로 카포에이라의 고향이자 중심지이다. 카포에이라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그룹인 콩고와 앙골라 등 지로부터 수입된 반투(Bantu)족들이 언젠가 있을지 모를 해방 운동을 위해 신체를 단련한 것에서 그 기원이 알려져 있다. 그들의 신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구력이 뛰어나고 동작이 아주 민첩하여 사탕수수 농사에 아주 적합하였다. ‘카포에이라’란 이름은 흑인 노예들이 혹독한 일과 처우를 피해 도망친 숲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농장주들은 도망친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노예 사냥군들을 숲으로 보냈는데, 흑인들은 이들을 발로, 손으로 그리고 머리로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기도 했다. 따라서 겨우 살아남은 노예 사냥군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화가 난 농장주들이 “도대

4) 음식을 예로 들면 지금은 바이아주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은 바타파(vatapá)가 있다. 생선이나 닭고기에 브라질 북동부에서 풍부하게 나는 재료인 코코넛 우유, 싱싱한 새우, 땅콩, 구운 카슈나무 열매를 넣어 양념한 후, 마지막에 아프리카식 매운 고추기름 덴데(zeite-de dendê)를 가미한 것이다. 그밖에 그들이 남긴 것으로 베림바우(Berimbau)라는 활처럼 생긴 외줄 타악기와 칸돔블레(Candomblé)라는 종교의식을 꼽을 수 있다.

체 도망간 흑인 노예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카포에이라에서 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숲에서 행해진 카포에이라는 매우 위협적이며 때로는 치명적인 무예였지만, 농장에서는 주인의 눈에 띄지 않게 게임으로 변화시켜 음으로 양으로 발전되었다. 원을 그리며 동작을 행하는 호다(roda)가 무대이고, 동작에 대한 안무, 노래와 연주도 곁들여졌다. 카포에이라 음악의 대표적인 리듬을 카발라리아(cavalaria)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마치 말발굽 소리 같다. 아프리카에서 이 소리는 위험이 닥쳤음을 알리는 서로간의 신호였다. 따라서 카포에이라의 무술적인 동작과 리듬감 있는 음악은 아프리카적인 요소이며 여기에 덧붙여진 예술성과 호다라는 공간의 제약성은 브라질만의 특수 상황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Browning, 1997:66). 물론 학자간에 어느 쪽 요소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관한 논쟁도 심심지 않게 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브라질이라는 공간, 그 중에서도 북동부 지방의 역사를 모르거는 카포에이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카포에이라의 기원에 접근하기위한 일반적 배경에 불과하다. 그러나 카포에이라가 어떻게 브라질이라는 공간에서 자리잡고 발전했는지에 관해서 일치된 학설은 없다. 각각의 나름의 근거있는 기원을 제시하는 주장들만이 다양하게 나열되어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지금까지의 카포에이라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카포에이라가 아프리카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데오도루 폰세카(Deodoro Fonseca) 정부에서 재무 장관직을 역임했던 후이 바르보자(Rui Barbosa)가 브라질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었던 노예제도와 관계된 모든 서류를 소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포에이라의 기원을 알고자 한다면 가급적 많은 학설과 배경에 대해 접해보는 것이 그 본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

한 카포에이라에 대한 다양한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브라질의 역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일거 양득이라고나 할까? 그러므로 일단 카포에이라의 기원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기원설을 소개한다.

## 1. 플랜테이션 기원설

사탕수수 농장의 힘든 노동 속에서 많은 내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었던 노예들은 서로 싸우는 일이 빈번했다. 이 경우 주인에게 들켜서 체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주와 노래를 가미하여 싸움을 싸움 같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선 비싼 돈을 주고 사온 노예들이 서로 싸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중요한 생산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카포에이라가 출현하게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흑인 노예들은 반경 3미터의 호다 안에서나마 언제 있을지 모를 해방투쟁을 대비하기 위한 체력훈련을 하며 현실의 분을 삼킨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르투갈인 지주들은 카포에이라를 단순히 목적도 없고 위협적이지도 않은 하나의 게임정도로 치부했다. 연주와 노래는 투쟁정신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무언의 도전은 현실과 이상을 가르는 호다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 2. 무쿠페족 기원설

1960년대에 제기된 무쿠페족 기원설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앙골라 남부의 무쿠페족들은 소녀가 여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에푼둘라(efundula)라고 하는 일종의 성년식을 거행했다. 이 때 젊은 전사들은 얼룩말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동작의 능골로(N'golo)라는 다소 과격한 군무(群舞)를 선보였는데, 이 능골로가 바로 카포에이라

라는 것이다. 이 의식을 통해 승자들은 성년이 된 같은 종족의 소녀를 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형태의 의식이 나이지리아의 카타군(Katagun)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이론은 1967년에 카마라 카스쿠두(Camara Cascudo)라는 학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만약 그 시대에도 능골로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면 오늘날의 카포에이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소개하는 킬롬보(Quilombo)라는 노예들의 은신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카포에이라의 동작과 음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 3. 킬롬보 기원설

1624년에서 1654년 사이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브라질 침공은 그때까지의 노예제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기초한 북동부 브라질의 안정적 사회구조를 깨뜨려버렸다. 외부의 물리적 침입으로 야기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은 노예들이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노예들은 울창한 주변의 삼림에 숨어살게 되는데,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킬롬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당시 형성된 킬롬보들은 지금의 알라고아스(Alagoas)州와 페르남부쿠(Pernambuco)州에 퍼져있었는데, 그 중 팔마리스 킬롬보(O Quilombo de Palmares)가 가장 오래 저항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나름의 사회-경제구조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변 도시와의 교역도 할 정도로 큰 규모로 발전했다. 킬롬보의 구성원들은 예속으로부터의 탈출에 만족하지 않고, 이억 만리 타지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하는 억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했다. 동시에 공권력의 토벌 작전에 항상 시달려야했기 때문에 나름의 방어수단을 구축할 필요도 있었다. 외부 세력에 대항한 킬롬보의 투쟁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전해지는데 그 싸움의 수단이 바로 카포에이라라는 것이다. 훌훌 단신 농장으로부터 탈출한 노예들에게 마땅한 무기가 있을 리 없었다. 총과 대포 등

당시의 최신티 무기에 대항하여 오직 맨몸으로 싸워야했던 탓에 실전을 위한 신체단련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카포에이라의 기원에 관한 설들은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눈여겨보아야 한다. 특히 무쿠 페족 기원설은 카포에이라의 특이한 동작들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며, 플랜테이션 기원설이나 킬롬보 기원설도 브라질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카포에이라가 태동했던 역사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위해 카포에이라의 동작 하나 하나를 통해 부활하는 역사적 영웅, 준비에 대해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 IV. 팔마리스 킬롬보의 준비

준비(Zumbi)라 불리우는 한 흑인 아기가 1655년 페르남부쿠주(州) 남쪽에 위치한 팔마리스 킬롬보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정부의 토벌대가 킬롬보를 공격하자 갓 태어난 준비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토벌대장이었던 브라스 다 호샤(Brás da Rocha)는 군의 규율대로 자기 대장에게 그 아기를 인계했고, 그 대장은 그를 다시 그 지방의 주교이며 환자들을 돌보던 멜로(Melo) 신부에게 선물로 주었다.

멜로 신부는 그에게 프란시스코(Francisco)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기가 영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고 종교를 가르쳤다. 하지만 당시 흑인 어린아이가 백인 신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을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한 손으로 떡 주는 사람은 또 다른 손으로 맷을 든다”라는 말이 있듯, 그는 어린 시절 신부로부터 갖은 수모와 구타를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15세의 소년으로 성장한 프란시스코가 글을 읽게 되고,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깨닫게 되자 상황이 달라진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깨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사무엘상 3:1-13).

위의 성경구절에서 뜻하는 사무엘의 소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종교적 정황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갱신을 위해 하나님이 사도 사무엘에게 부여한 수직적 ‘계시’와 수평적 ‘전파’라는 선지자적 사명을 뜻한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를 성경 속의 사무엘로 인식, 멜로 신부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1670년 고향인 팔마리스 킬롬보로 도망친다. 당시 그곳 우두머리인 강가 줌바(Ganga Zumba)는 백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프란시스코, 아니 줌비는 이에 굴하지 않는다. 원래 팔마리스 태생이었기 때문에 행복만 하면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 평화조약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줌비는 약관 25세의 나이에 킬롬보의 새 우두머리로 추대되어 백인들에 대항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한다. 팔마리스 킬롬보가 가장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라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를 지도자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줌비가 위대한 이유는 고도의 전술 전략과 영웅적 행위 만이 아니라, 그가 신봉했던 이념에 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영토의 획득이나 팽창, 혹은 남을 노예화시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흑인들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노예제도라는 불의에 끝까지 굴하지 않은 것이었다. 주정부가 파견한 군대의 계속된 공격에도 근 1백년이나 견디어낸 이 킬롬보는 1694년에 상파울루 출신인 도밍구스 조르지 벨류(Domingos Jorge Velho)가 이끄는 반데이란치스군에 의해 소멸된다. 그는 탁월한 인디오 사냥군으로 “인디오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팔마리스 킬롬보를 정복하기 위해 대포로 단단히 무장하여 상파울루로부터 출발했다. 그가 이끄는 군인들은 주저함도 없이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줌비였지만 도밍구스의 위력있는 대포를 이길 수는 없었다. 전세가 기울자 그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팔마리스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1년 후인 1695년 11월 20일, 줌비는 부하에게 배반당해 도이스 이르망스 산맥(Serra Dois Irmãos)에서 새벽 5시경 살해된다. 식민정부는 노예제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그의 사지를 절단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헤시페 광장에 머리를 걸어놓는다.

## V. 카포에이라의 변천: 저항, 탄압 그리고 폭력화

이렇듯 플랜테이션 농장과 킬롬보에서 착취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출발한 카포에이라는 18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문화에 뿌리를 둔 다른 문화현상들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한다.

1808년 나폴레옹의 포르투갈 침공으로 인해 본국으로부터 망명한 주영 4세가 브라질에 왕실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자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본국 영토의 상실이라는 국제정치의 실패를 국내적 질서유지로 만회하려했던 포르투갈 왕실은 중앙집권을 표방하면서 이민족의 문화를 용인하려하지 않았고 카포에이라도 시련을 겪게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에 의한 아프리카 문화의 표출은 커다란 제약 없이 허용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장려되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노예들에 내재된 불만을 잠재우는데 있어 그들 고유의 생활방식과 문화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긍정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개별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노예 그룹들간의 차별성을 키워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그룹간의 연대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계산이 숨어있었다. 로마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통치방식인 '나누어서 지배한다'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다고나 할까?

그러면 킬롬보가 사라진 이후 조직적인 흑인들의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카포에이라는 왜 위협적으로 비추어졌을까? 카포에이라는 우선 수련자인 노예 개인들에게 생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었고, 집단적으로는 민족주의를 태동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또한 신체적으로 단련된 우수한 전사를 키워낼 위협성이 있었고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상실을 우려했던 경제적 계산도 작용했다. 주영 4세 이전까지 카포에이라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지주들과 관리들도 분명히 “뭔가 수상하다.”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이들이 카포에이라를 적극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카포에이라의 잠재적 위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브라질의 지배층이 이러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게된 배경은 역시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망명 이후 대폭 정비된 새로운 국가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심신수양과 숭고한 방어정신에 뿌리를 둔 카포에이라는 폭력의 원천으로 치부된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된 18세기 말, 물라토들을 중심으로 도시하

층민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카포에이라로 단련된 무술실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약탈과 집단 패싸움 등 사회문제를 빈번하게 일으켰다. 비록 노예라는 예속된 신분상의 제약 속에 격리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 노예해방으로 부여된 자유는 일종의 심리적 공황을 잉태했고, 해방 이후 이들이 끼어들만한 공간은 브라질 사회의 공식부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지배층들은 여전히 기존질서 하에서 사회-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했고, 사회적 가치라던가 권력을 구 노예계층과 배분하려는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해방된 노예들이 비 공식부문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카포에이라 갱들은 1888년의 노예해방과 1889년의 공화정 선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도기에 걸쳐 심각한 사회불안을 유발했으며 심지어는 군부와 경찰권에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정치체제가 왕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1890년대가 도래하자 리우를 주요 활동무대로 한 카포에이라 갱들의 폭력성은 극에 달한다. 심지어는 정치가들까지도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카포에이라 갱들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공화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구 왕실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고자하는 일말의 희망 속에 카포에이라 갱들을 후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 사회불안의 조성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리우나 바이아에서는 카포에이라를 수련하는 사람들이(capoeirista) 발차기와 공중회전에 능숙하며 칼을 지니고 다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헤시페의 카니발 조직은 이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까지 했다. 경쟁의 심리가 팽배했던 삼바 축제의 행진 때 카포에이리스타들은 축제 행진의 맨 앞에 서서 대열을 이끌었으며 다른 행진 팀들과 조우할 경우에는 폭력을 서슴지 않아 유혈낭자한 혈투까지 벌이기도 했으니, 카니발의 폭력화에도 일조했다는 비난이 카포에이라에 쏟아지는 것도 당연했다. 당시 상당히 미비했던 브라질의 법 체계도 활개치는 폭력배들을 막지 못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브라질에서 형법이 제정된 해는 1830년이었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실정법으로 기능하게 된 시기는 공화국 성립이후 1890년이 되어서였으며 그 이후

에야 공권력은 카포에이라 갱들의 폭력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sup>5)</sup>

이후에도 카포에이라는 저항적인 요소 탓에 그리고 위와 같은 폭력성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법으로 금지되어 왔었는데 마지막 금지령이 해제된 것은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는 1930년이다. 브라질의 지배층이 흑인과 물라토를 중심으로 한 하위 계층의 조직적 저항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카포에이라의 변천을 살펴보면 사회변동에 따라 예술성이 사라지고 호다의 경계가 무너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 동안 브라질 사회에 고착화되었던 계층 및 인종간의 경계도 무너진다.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의 완충계층이기도 했고 사회적 불안요소이기도 했다. 즉, 물라토가 추는 삼바가 흑백간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한다면 물라토에 의한 카포에이라는 바로 18세기와 19세기 브라질의 사회변동을 상징한다.

## VI. 카포에이라의 방향을 끝내며

20세기에 들어 카포에이라는 북동부 바이아 지방에서 예술성을 가미하며 발전하여 의식-춤-무예-게임의 각 요소를 골고루 갖추게 되었고, 베림바우라는 타악기도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카포에이라의 방향을 끝내고 예술성을 되찾게 해 준 인물로 빔바 사범(Mestre Bimba)와 파스틴나 사범(Mestre Pastinha)를 들 수 있는데, 카포에이라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들을 위대한 선각자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카포에이라는 ‘앙골라식 카포에이라(Capoeira Angola)’와 ‘브라질식 카포에이라(Capoeira Regional)’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백인 농장주가 흑인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흑인들이 앙골라 놀음을 하고 있군”이라고 말한 데서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하고, 후자는 빔바 사범

---

5) 이 사례는 브라질 역사에서 법 자체와 그것의 적용사이에 있어 크나 큰 괴리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로 오늘날 기록되어있다.

에 의해 브라질 식으로 변형된 것을 말한다.

1928년 살바도르에 최초의 카포에이라 도장을 설립한 인물인 빔바는 '앙골라식 카포에이라'에다가 그간 길에서 행해졌던 바투케(Batuque - 발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땅에 때려눕히는 폭력적인 게임)를 섞어, 더 공격적이며 빠른 동작을 구사하는 '브라질식 카포에이라'를 창설한다. 1974년 2월 5일 자신이 죽는 날까지 공연 스케줄을 잡아놓았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빔바의 노력으로 카포에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고 그의 도장에는 상류층 자제들을 위시하여 심신수양에 전념하고자 하는 문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한편 1941년에는 파스틴냐가 '앙골라식 카포에이라' 도장을 열어, 앙골라식 카포에이라의 가장 큰 인물로 남게된다. 카포에이라의 기본 동작과 가르치는 방법론을 정립한 파스틴냐는 카포에이라의 도복도 만들었는데, 바이아州的의 축구대표 팀 이피랑가(Ipiranga)의 유니폼을 본 때 검정과 노랑을 사용했다.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문필가 조르지 아마두(Jorge Amado)의 작품에서도 언제나 카리스마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파스틴냐는 화려한 화술을 구사했던 카포에이라의 철학자로 불리며 일생을 카포에이라에 바쳤지만, 그 역시 공권력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고 말년에는 불우한 최후를 맞아 후학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카포에이라에 대한 지배층의 적대감이 희석되고 제도화의 길을 걷게된 또 다른 배경에는 "민중주의"를 표방했던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대통령의 문화 진흥정책도 커다란 몫을 하였다. 축구와 카니발을 열렬히 후원하기도 했던 바르가스는 카포에이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일단 해제하고 경찰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다. 카포에이라를 국민적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내에서만 공연과 훈련이 허용되었다. 여전히 정치권은 카포에이라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늦추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중주의 정부의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한 카포에이라는 곧 이어 브라질의 국가

적 스포츠로 인정받게 되며, 1974년에는 '브라질식 카포에이라 협회'가 창립된다.

'앙골라식'이든 '브라질식'이든 어떤 형식을 따르던 간에 카포에이라는 호다라는 공간 내에서 행해진다. 즉 두 명의 춤꾼이 나뉠대로 원을 그리며 행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고 때론 둘러싼 사람들이 없는 가상 공간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카포에이라의 경기방식은 호다 안에서 마주한 두 명의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되 주로 머리와 신체의 하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도는 헤드스핀과 손동작, 발차기를 적절히 섞되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시선을 항상 상대방에게 고정시키고 그의 동작을 예의주시 해야한다는 점이다. 손바닥을 땅에 댄 채로 몸을 지지하며 발을 공중으로 뻗는 동작도 카포에이라의 주요 동작이다. 손과 발이 뒤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응시해야 하니 에너지의 소모가 많을 법도 하다. 주변의 다른 동호인들은 리듬감 있는 반주를 제공하며 경기하는 동료들을 독려하기 위해 타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 카포에이라에 쓰이는 악기는 우선 베림바우와 아타바께(atabaque)라는 콩고, 판디에루(pandiero)라는 탬버린, 그리고 아고고(agogo)라는 벨처럼 생긴 토속악기가 있다.

자기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과 상대를 견제하는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가 결합한 것이 바로 카포에이라인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마치 브라질 역사 속의 모순과 갈등구도가 작은 원안에 모두 스며든 것 같다. 유럽과 아프리카, 무법자와 경찰, 혼동과 질서, 그리고 선과 악이 어우러진 복합체이다. 물론 서로간의 극한 적대감이 아니고 지는 승부 가르기는 없다. 그래서 '카포에이라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춤추다' 혹은 '싸우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경기하다'라는 뜻의 jogar동사를 쓴다.

오늘날 정통 카포에이라는 고수가 경영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엄격히 교육되고 있으며 의식이 있는 흑인이나 플라토 부모들은 어김없

이 유명한 카포에이라 선생의 학원에 찾아가 자녀를 맡긴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심신수양을 마친 그들은 미래의 브라질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인 것이다. 반면 거리에서 춤판을 벌이는 아이들은 대개 문제아들로 자신들의 동작에 리듬을 더해주는 다음과 같은 노래의 가사에 숨겨진 역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에 있네, 집안에 있네.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네,  
누군가 문을 두드리네,  
솔로몬이 보냈다 하네.

투쟁의 순간이 오면 우리를 돕고자 왔다네.  
해방의 투쟁! 그러나 나는 전사가 아니었다네.  
싸움을 걸지도 않았다네,  
오랜 친구여,  
그날이 오면 무기를 들고,  
그날이 오면 신을 찬미하세.

「집안에 있네 'Tava lá em casa, o ya ya」에서..

## VII. 맺음말: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아프리카적 요소가 브라질 정신과 문화에 남아있는 것은 마쿠레레 (Maculelê), 아프리카 춤, 삼바가 있지만 카포에이라처럼 강렬하게 표출되는 것은 없다. 브라질 국민들은 팔마리스 킬롬보의 줌비 (Zumbi)가 포로가 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영웅적인 최후를 기려, 그의 사망일을 진정한 노예해방의 날로 생각한다. 그리고 식민시대, 백인들의 혹독한 착취를 피해 팔마리스 킬롬보라는 공동체를 이룩한 흑인들의 투쟁사를 기억하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은 카포에이라의 동작 하나 하나를 죽음으로써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던 줌비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카포에이라는 흑인노예들의 백인들에 대한 저항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종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카포에이라는 모든 인종과 사회 계층간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마술적인 유인력이 있어, 그들 자신들이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뭉치게 한다. 춤비가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노예제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없는 “평등”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브라질 흑인들의 삶의 역사가 녹아있는 카포에이아가 상징하는 숭고한 정신은 브라질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오늘의 브라질 사회는 과거의 백인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인종 민주주의를 향한 정체성 찾기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카포에이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기원의 문화현상들에 대한 연구와 진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성의 심연을 표현하는 미학적 감수성이 두드러진 흑인 문화가 새로운 세기에 브라질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즉,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흑·백인종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 넓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창설된 브라질 문화부 소속의 ‘팔마리스 문화재단(A Fundação Cultural de Palmares)’은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Pedro Alvares Cabral)의 브라질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 아프리카문화 정보센터(O Centro Nacional de Informações e Referências da Cultura Africana)’라는 부속기관을 창설하였는데, 이 센터는 브라질 외무성과 협력하여 흑인관련 외국 연구자들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흑인 문화의 보호와 기록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브라질 연방정부는 브라질 전역에 511개 지역의 킬롬보의 흔적들을 발굴하여, 그 중 55개 지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특히 4개 지역은 흑인 문화유산 보호 장소로 지정했다.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들의 저항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Pereira, 1998, p.63).

따라서 카포에이라가 브라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화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까지 카포에이라 도장이 자리잡고 있고 심신수양의 무술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의 인종혼합에 대한 모델이 미래의 세계에 있어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란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인종 민주주의론'이 진정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상인 지도 모르겠다.<sup>6)</sup>

그 동안 카포에이라는 도시 흑인 하층민의 문화적 자긍심 함양과 신체 단련의 방편으로, 그리고 집 없는 흑인 청소년들에겐 젊은 혈기의 발산을 위한 일종의 사회교육 수단으로 주로 애용되어 왔었는데 최근들어 계층과 인종, 그리고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카포에이라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뿌리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카니발이나 삼바와 마찬가지로 카포에이라는 밑으로부터의 문화 현상이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카포에이라는 삼바나 카니발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흑인들의 과거 - 착취와 폭력에 기초한 어두운 이미지 - 가 진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향한 카포에이라의 눈부신 발전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카포에이라가 브라질의 '북동부' 혹은 '흑인', '물라토'라는 지역적-계층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날 탱고와 라틴댄스가 세계를 정복하듯, 우리의 후손들을 열광시킬 날이 머지 않았다.

---

6) 미국에서는 카포에이라의 동작을 도입한 액션영화도 제작된 바도 있다. 그 대표작으로는 브룩 윌즈 주연의 「브렌다 스타(Brenda Starr)」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카포에이라의 고수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제론 비에이라(Jelon Viera)가 무술감독을 맡았다.

## 참고문헌

- 곽재성·우석균,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 민음사, 2000.
- 최금좌, 「질베르투 프레이리 : 인종 민주주의론에서 열대학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이성형편, 까치, 1999a.
- \_\_\_\_\_, “브라질 신화 ‘루조 트로피칼’의 창조자 질베르투 프레이리에 대한 80년대 이후의 재해석들이 브라질 사회사상사에 주는 의미”, 중남미 연구(제18-1권),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b.
- ALMEIRA, Bira, *A Brazilian Art Form : History, Philosophy, and Practice*, North Atlantic Books, 2ed, 1983.
- AZEVEDO, Célia Maria Marinho de, *Onda negra, medo branco: O negro no imaginário das elites - século XIX*, Rio de Janeiro, 1987.
- BASTIDE, Roger, “The Development of Race Relations in Brazil”, in Guy Hunter, ed., *Industrialization and Race Relations: A Symposium*, London, 1965.
- BROWNING, Barbara, "Headspin: Capoeira's Ironic Inversion", in Fraser Delgado, Celeste, et. al (eds.) *Everynight Life: Culture and Dance in Latin/o America*,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pp.65-92, 1997.
- BURDICK, John, "Brazil's Black Consciousness Movement" in Danaher, Kevin & Machael Shellenberger, *Fighting for the Soul of Brazil*, Edit.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95, p.176-183, 1995.
- CONRAD, Robert E., *Children of God's Fire: A Documentary History of Black Slavery in Brazil*, Princeton, 1983.
- COSTA, Emília Viotti, “The Myth of Racial Democracy: A Legacy of the Empire”, in *The Brazilian Empire: Myths and histories*, Chicago, 1985.
- FERNANDES, O *Negro no mundo dos brancos*.

- FREYRE, Gilberto - *Casa Grande & Senzala*,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1933.
- \_\_\_\_\_ - "A propósito de preconceito de raça no Brasil" (On race prejudice in Brazil) *O Estado de São Paulo*, 25 de junho de 1969.
- \_\_\_\_\_ - "Brasileiro - sua cor?" *Folha de São Paulo*, 5 dez. de 1979.
- HASENBALG, Carlos - *Discriminação e desigualdades raciais no Brasil*, Rio de Janeiro, 1979.
- HOMER, Silvio, *História de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1943.
- KLEIN, Herbert, *African Slaver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6.
- KOSHIBA, Luiz & PEREIRA, Denise Manzi Frayze, *História do Brasil*, São Paulo, Atual Editora, 1997.
- LEITE, Dante Moreira, *O Caráter Nacional Brasileiro*, Pioneira, 1983.
- MEADE, Teresa A., *Civilizing Rio: reform and resistance in a Brazilian city, 1889-193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1997.
- MOTA, Carlos Guilherme,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 1933-1974*, São Paulo, Atica, 3ed, 1977.
- MOTTA, Athayde, "Racial Issues and Politics: A Public Policy Experience in Brazil", in <http://lanic.utexas.edu/projet/ppb/papers93-94/athayde.html>.
- PEREIRA, Dulce Maria, "The black Face of Multicultural Brazil", in: *Texts from Brazil*, Special Edition, Fifty year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amaraty Palace, Brasília(DF), May/August, Year II - No 6, 1998.
- SKIDMORE, Thomas E., "Race and Class in Brazil: historical Perspectives", in Pierre-Michel Fontaine, ed., *Race, Class*

*and Power in Brazil*, Los Angeles, 1985.

Material para o curso de "Racismo no Brasil - as dificuldades do negro no mercado de trabalho" da Professora CLARA de 1998 na UCB - Universidade Católica de Brasília, in:  
<http://www.geocities.com/dafpereira/objetivo.html>

<http://www.capoeira-life.com>

<http://www.capoeirasj.com>

<http://www.geocities.com/Colosseum/Arena/9743/index.html>